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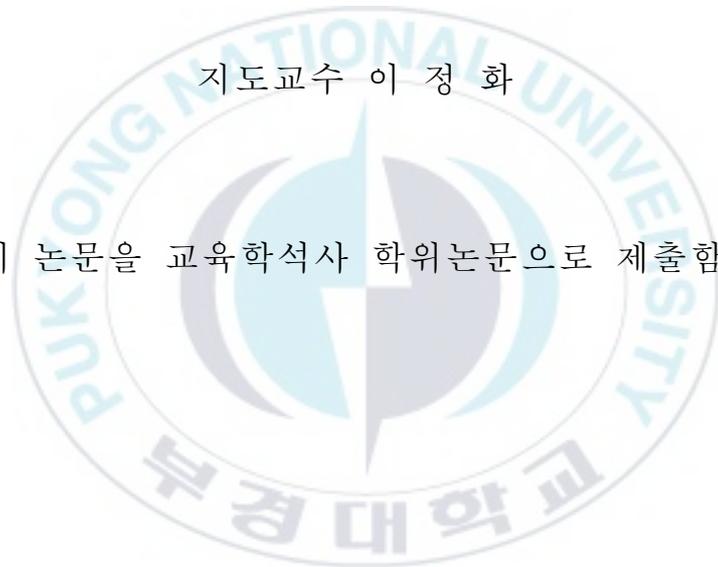
김인경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아동의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지도교수 이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 년 8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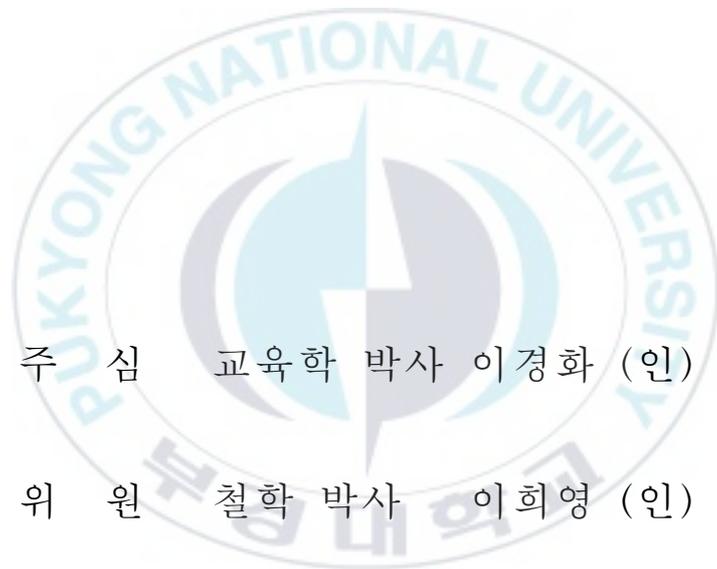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인 경

김인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 년 8 월



주 심 교육학 박사 이경화 (인)

위 원 철학 박사 이희영 (인)

위 원 철학 박사 이정화 (인)

목 차

영문초록.....	iv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5
3. 용의 정의	6
II. 이론적배경	
1.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에 의한 성격유형.....	7
2. 자아탄력성.....	20
3.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 간의 선행 연구 고찰.....	2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7
2. 측정도구.....	28
3. 연구절차.....	30
4. 분석방법.....	31
IV. 연구결과	
1. 기초자료분석.....	32
2. MMTIC의 각 선호경향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차이.....	35

3. 기능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차이.....36

V. 논의 및 결론

1. 논의.....38

2. 결론.....42

참고문헌.....44

부록 : 자아탄력성 검사지48



그림 및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27
<그림 1> 선호유형 판별 점수대	29
<표 2> MMTIC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29
<표 3> 연구대상 아동의 성격유형 선호경향.....	32
<표 4> 연구대상 아동의 기능 유형별 분포도.....	33
<표 5> 연구대상 아동의 자아탄력성 평균 및 표준편차	34
<표 6>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검증.....	35
<표 7> 심리적 기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검증	36
<표 8> 심리적 기능과 자아탄력성 점수 차이의 <i>sheffe</i> 사후검정	37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ype and Ego-Resiliency

Kim In Ky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lay the ground for effective guidance toward adaptive coping behavior by finding out differences in ego-resiliency between personality types in the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MMTIC) and by understanding the cause of children behavior and attitude personality type.

For the study, personality types and ego-resiliency of 180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from 3 elementary schools that is located in suyong-gu and haebundae-gu, Busan were measured. The measuring instrument was MMTIC, which was developed by Meisgeier and Murphy in the US in 1990 and standardized in Korea in 1993 by Jungtaek Kim and Hyesook Shim. In order to measure Ego-Resiliency, I used Block & Kremen(1996)'s Ego-Resiliency scale that is translated and remodified by Sungkyung Yoo (2004). ANOVA were conducted to compare differences in ego-resiliency that is based on children's preference for personality types, that is, Extraversion - Introversion, Sensing - iNtuitin, Thinking - Feeling, Judging - Perceiving. Also, compared item was differences in ego-resiliency between four function types - ST(Sensing/Thinking), SF(Sensing/Feeling), NT(iNtuitin/Thinking) and NF(iNtuitin/Feeling).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First, the result showed that in participants personality type, Extraversion type indicated higher rating than Introversion did. Also Sensing ranked higher than iNtuitin did. This result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children's ego-resiliency score is significant in some part. According to the children's preference for personality types, participants' ego-resiliency score

appears significantly higher in Extraversion, Feeling and iNtuition than in Introversion. This result, therefore, supports the goal of the study that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go-resiliency between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types children. Third,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go-resiliency between four function types of children and found that NF-types childr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go-resiliency score among four types.

In conclusion, Introversion, Thinking, Sensing types of children showed lower ego-resiliency than the other types did. The finding implicates that we need to develop a program for parents and educators, in order to understand and teach lower ego-resiliency children both on a family basis and in the field of teaching.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외형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양육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각자가 가지는 성격이나 성향은 다르다. 어린이들도 자신을 드러낼 때 보이는 특성들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특성들이 존중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환경에서라면 어린이들은 그들의 개성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개성의 차이점은 심리유형과 관계가 있다. 즉, 아동이 어떻게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것은 심리적 기능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김정택과 심혜숙(1993)은 성격유형을 통한 개인이나 그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오해와 고통스런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는 어린이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과 다른 어린이에 대한 수용도를 넓히고 성취동기를 높여주며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들어 성격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 특히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사용하여 상담과 심리치료, 교육과 진로 분야와 산업조직체내 인력 개발과 개인성장 프로그램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동들의 성격유형은 MBTI를 기본으로 하여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한 MMTIC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 되어 있다.

성격을 환경자극에 대처해 나가는 개인의 독특한 인지적, 행동적 양식으로 볼 때,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 능력은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류근유, 1995).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생활사건이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들도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한미현, 1996)를 살펴보면 아동도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과 개인 사이의 특정한 관계라고 정의(Lazarus & Folkman, 1984)하고, 오늘날의 초등학생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가정 및 학교에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백송숙, 2003).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훼손시키게 되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주어 가정과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애현, 1998). 또한 이러한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처하게 된다(김민정, 2005). 그러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요인과 잘 적응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Cicchetti와 Toth(1991)는 같은 위험스러운 환경 하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달적 이탈을 일으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개인의 기능을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란 개념을 지적할 수 있다(김옥선, 2005). 자극상황에 대해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의 적응성을 연구하기 방법으로 Block과 Block (1980)이 도입한 개념인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없애는 것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Tellegen, 1985)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도록(Block & Kremen, 1996)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은 충동표현의 정도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정도를 나타내며 많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아동의 학교수행 및 교실생활에서의 적응, 지능, 자아존중감, 욕구지연과 충동조절 등 아동기 적응의 중요한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구형모, 2000).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비탄력적인 아동들은 탄력적인 아동들에 비해 적응상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에 의해 현실 접촉에 곤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윤현희, 1998). 또한 아동의 기질과 자아탄력성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기질 특성 중 활동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권지혜, 2006). 이렇듯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격을 연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일한 자극과 상황에 대해 나타나는 개인들마다의 다른 반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자아탄력성 개념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질과 적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적인 문제를 설명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을 심리적 경향의 역동적 관계로 파악하여, Carl G Jung의 심리 유형론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Katherine Cook Briggs Myers가 1990년에 제작한 어린이 성격유형 검사(MMTIC)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성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린이 성격유형 검사인 MMTIC(Murphy - 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을 통해 성격유형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모든

어린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에게는 정서적이고 행동적 측면에서의 문제성을 자각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구형모(2000)나 권지혜(2006) 등 몇몇의 연구자들이 성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MMTIC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객관화된 자료를 통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성격을 MMTIC을 통해 알아보고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의 아동이 저학년 때와는 달리 부모나 선생님,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당하며 기대를 받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생겨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탄력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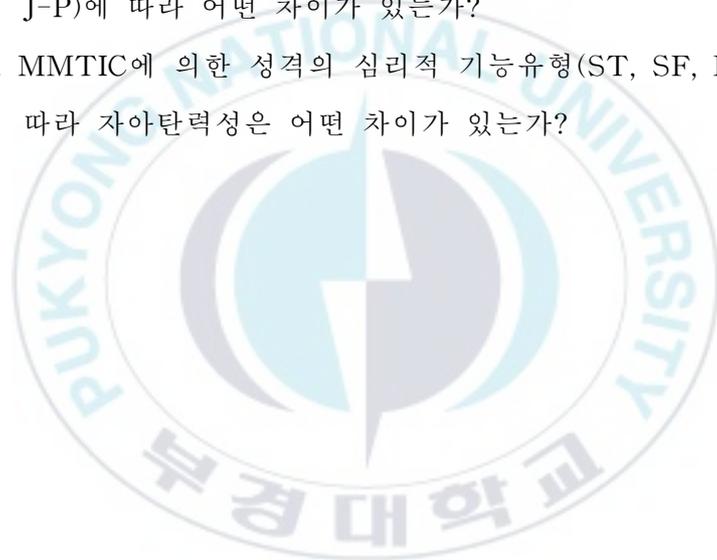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하여 성격유형별로 아동의 태도와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여 가정이나 학교장면과 상담 장면에서 자아가 취약한 아동들을 이해하고 예방적 치료적 개입에 유용한 얻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격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자아탄력성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MMTIC 성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아탄력성은 MMTIC의 4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MMTIC에 의한 성격의 심리적 기능유형(ST, SF, NT, NF)에 따라 자아탄력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용어 정의

가. 아동의 성격유형

아동의 성격유형은 Jung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하여 1990년 미국의 C. Meisgeier 박사와 E. Murphy박사에 의해 개발된 검사지를 김정택, 심혜숙이 1993년 한국 표준화 작업을 마친 것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에 따라 분류한다. MMTIC에 의하면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각 성격별로 동일한 사례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본 연구에서 성격유형은 심리적 선호경향과 심리적 기능유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적응유연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2004)이 번안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얻어진 점수를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에 의한 성격유형

가. Jung의 심리유형론

Jung(1971)은 인간행동 속에 내재하는 자연스런 차이점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였는데, 이 이론의 내용은 인간은 저마다 마음의 기능을 결정하는 선천적인 선호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환경의 여러 자극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심리유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심리유형론에서는 인간은 같은 사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인마다 일관된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마다 선호하는 방식을 발달시켜 나가며, 겉으로는 인간의 행동이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인 내부에는 일관성과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역, 1995). 그는 선호방식에 따라 인간의 성격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심리유형론에서는 심리적 경향의 역동적인 경향을 중시한다. Jung(1971)은 그의 심리유형 안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을 지니는 구조 간의 동적 관계를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이는 외향적(E) 태도와 내향적(I)태도, 그리고 정신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S)과 직관(N), 사고(T)와 감정(F)의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16가지 성격유형이란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하며, 또 이러한 각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 태도(내향성, 외향성)를 취하는가에 따라 나뉘어진다. MBTI는 8개의 지표, 4개의 기능, 4개의 기질 그리고 16개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심혜숙·임승환, 1997).

MBTI 지표에는 E/I(외향/내향)지표, S/N(감각/직관)지표, T/F(사고/감정), J/P(판단/인식)지표가 있다

(1) E/I(외향성/내향성)지표

E(외향성)와 I(내향성)는 상호보완적 태도 또는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외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관심을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쏟는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 세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부단히 외부 환경의 자극을 찾아 나서며, 행동 지향적이며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을 대한다. 또한 솔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사교성이 많다.

내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외부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한다. 내향성이 주로 관심을 쏟는 것은 자기 내부 세계의 개념과 관념이다. 마음 속의 개념과 관념을 분명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일시적인 외부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개념을 더 신뢰한다. 사려깊고 주위와 떨어져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며, 고독과 사생활을 즐긴다.

(2) S/N(감각/직관)지표

모든 인식활동은 S(감각)와 N(직관)으로 나눌 수 있다. S(감각)와 N(직관)은 합리적인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작용하는 비합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감각이란 우리의 감각을 통해 관찰하는 인식을 말한다. 감각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감각은 현재 일어나는 일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다. 이들은 현재를 즐길 줄 알고 구체적이고 실재적이며, 관찰능력이 뛰어나고 상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 한다.

직관이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Jung은 직관을 무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인식으로 특징짓고 있다. 직관은 관련이 없어보이는 일들을 갑작스럽게 인식하는 패턴을 갖는다. 즉, 육감이나 예감 또는 창의적인 발견과 같이 돌발적으로 의식에 떠오르기도 한다. 직관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감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게 한다. 직관적인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현실을 보기보다는 가능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상상적, 이론적, 추상적, 미래지향적 또는 창조적인 특징을 발달시킨다.

(3) T/F(사고/감정)지표

T(사고)와 F(감정)는 생활 사건들을 이성의 법칙에 따라 조화시키고 판단하는 합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고는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이다. 사고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과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사고와 관련된 특징을 발달시킨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정의와 공정성의 원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

감정은 상대적인 가치와 문제의 장점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케하는 기능이다. 감정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중시한다.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 기능으로 판단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긴다. 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친화와 온정과 조화를 바라며, 과거의 가치를 중시한다.

(4) J/P(판단/인식)지표

Jung은 E/I(외향성/내향성), S/N(감각/직관), T/F(사고/감정)에 대해 설명

했다. J(판단)와 P(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암시는 했으나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판단과 인식은 Briggs와 Myers가 MBTI를 개발할 때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J(판단)와 P(인식)는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며, E/I(외향성/내향성)와 함께 두 개의 선호 기능 중 주기능과 부기능을 찾을 때 사용되는 지표이다.

판단적 태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계획을 잘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판단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보면 행동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목표가 뚜렷하며 확고해 보인다. TJ(사고적 판단)형은 논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반면에 FJ(감정적 판단)형은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인간적인 요인을 많이 고려한다.

인식적 태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즐긴다. 그들이 지각하는 태도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보면 자발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적응력이 높아 보인다. 또한 새로운 사건이나 변화에 개방적이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여려 한다. 판단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반면에 인식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주어진 정보를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에 결정한다.

나. 심리유형의 선호 경향이 나타내는 아동의 특성

심리적 선호경향에 따른 성격유형에 따라 아동의 특성은 저마다 다르다. 여기에서 심리적 선호경향이란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활용하고, 선택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며, 더 좋아하고 편하며 쉽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인식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Jung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유형 발달은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평생동안 일어나는 과정으로써 바람직한 유형발달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정택·심혜숙, 1993).

(1) 외향과 내향

이는 에너지의 방향으로 개인 및 사회생활을 할 때 관심의 방향이 외부세계인가 혹은 내부세계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외향형은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의 외부세계를 지향하며 바깥 세계에 대해 자신의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쉽게 이야기를 하고 친해지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도 활발하게 행동하는 편이다.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솔직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슬프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즉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편이며 기분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남들이 기분을 금방 알게 된다.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시도해 보는 편이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나 책을 읽는 것 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활동적·사교적이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며 일어나는 상황에 참여하길 좋아한다.

내향형은 에너지가 내면세계로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친한 친구들이나 친구가 없는 모임에 가면 매우 불편해 하며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하고 몇몇 아이들과만 아주 친하게 지낸다. 부끄러움을 쉽게 타며 침착하고 조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혼자 놀거나 조용히 책 읽는 것이 자주 눈에 띄며 생각에 빠질 때가 자주 있다. 먼저 신중히 생각한 후 행동하는 편이며 자기표현이 재빠르지 않고 누가 물었을 때라야 대답을 한다. 낯선 곳으로 심부름 가는 것을 매우 주저한다.

(2) 감각과 직관

이 지표는 인식과정으로서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의 기능이다.

감각형은 정보를 오감을 통해 수집하므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정확한 표현을 더 잘 이해하며 공부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암기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외모나 다른 특징들을 자세히 기억하고, 꾸준하고 참을성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조작하는 것을 좋아하며 꼼꼼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보다는 남들 하는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일보다는 늘 하는 익숙한 일이나 활동을 더 하려고 한다. 눈에 너무 띄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을 좋아한다. “그게 정말이야?”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한다. 또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직관형은 육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므로 상상, 추리, 공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상상속에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며 공상 속의 친구가 있기도 한다. 종종 물건들을 잃어버리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할 때가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며 신기한 것에 호기심이 많아 질문이 많은 편이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또는 되고 싶다는 꿈이 많으며 상징과 의미 추구를 선호하고 미래에 관심이 많다.

(3) 사고와 감정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내릴 때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능이다.

사고형은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킨다. 논리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므로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꼬치꼬치 따져서 궁금증을 풀고 싶어한다. 논리적이고 객관적 분석 또는 설명으로 부모나 친구들을 잘 설득하는 편이다. 의지와 끈기가

강한 편이고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꾸준히 밀고 나가며 참을성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아도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다. 성적이 올랐거나 일을 잘했을 때 직접 칭찬을 받아야 좋아한다. 이들은 공평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

감정형은 사람의 느낌이나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의 사람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편이다.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며, 감정이 풍부하고 인정이 많아 순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며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으면 눈물부터 나온다. 매를 맞으면 쉽게 잘못했다고 하는 편으로 싹싹하고 연하다는 소리를 잘 듣는다. 양보를 쉽게 하는 편이며 음식이나 장난감을 선택할 때 쉽게 결정을 못 내린다.

(4) 판단과 인식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판단기능이나 인식기능 중 하나를 사용한다.

판단형은 질서, 계획, 구조화된 생활 양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생활 계획표를 세밀히 짜놓고 그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며 시험보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공부계획표를 짜놓는다. 계획에 없던 일을 시키면 몹시 짜증을 낸다. 마지막 순간에 쫓기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대개 먼저 공부나 할 일을 해 놓고 나서 노는 편이며 계획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편이다. 목표가 뚜렷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편이다. 학교나 친구들과 모임에서 책임있는 일을 맡고 싶어한다. 깨끗이 정돈된 상태를 좋아한다.

인식형은 자발적이고 유연한 생활양식을 선호하므로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일이 생기면 그 때 그 때 처리하는 편이며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방이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어도 개의치 않고 노트나 책가방 등을 덜 챙기며 신발이나 옷이 떨어져도 무관심한

편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에 관심을 가지고 벌리는 일이 많으며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한다. 활동이 많으면서도 무난하고 점잖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다. 심리적 기능 유형

심리적 기능이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그 개인의 고유한 반응양식을 가지게 하는 일관된 내재적 심리 경향성이다. 기능유형에는 인식기능 S(감각)와 판단기능 T(사고)나 F(감정)와 결합해서 ST(감각적 사고)형과 SF(감각적 감정)형을 만든다. 또 인식기능N(직관)과 판단기능T(사고)나 F(감정)와 결합해서 NT(직관적 사고)형과 NF(직관적 감정)형을 만든다. 그래서 기능 유형은 ST형, SF형, NT형, NF형의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ST(감각적 사고)형

실질적 사실적 유형으로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고 사실과 경험을 적용하는 상황을 선호하며, 일상의 과업과 관련된 사실과 객관성을 가진 기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단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적이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환경이나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자극을 받는다.

(2)SF(감각적 감정)형

동정적, 우호적 유형으로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나 매일 사람들의 관심사를 접하는 상황에 잘 적응한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심사를 위해 봉사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문제 해결 방식은 결과가 지닌 사실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선호한다. 친절하고

주관성과 사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며, 사람들에게 관한 사실에는 관심이 적다.

(3)NT(직관적 사고)형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 가능성에 주의를 집중하나 이론적인 개념을 발달시키는 상황에 잘 적응한다. 문제 해결은 원인과 결과가 지닌 가능성에 대해 통찰하는 객관적 분석을 통해 처리한다. 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고, 미래와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변화추구, 장기적 목적과 비전을 강조한다. 업무의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면에 취약하며,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주관대로 부정확하게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사고를 선호하므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한다(김선희, 1998).

(4)NF(직관적 감정)형

열정적 통찰적 유형으로 가능성에 주의를 집중하나 사람들의 열망을 이해하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해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문제해결 방식은 결과가 지닌 가치의 가능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고려하여 통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또한 이들은 창조적, 예술적 표현이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과제를 선호하고 융통성이 있고 상상력이 인정되는 분위기과 학급을 선호한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역, 1995).

라. *U-Band* 지표

MMTIC에 의한 성격유형 역시 MBTI와 마찬가지로 8가지 선호경향과 기질 및 기능유형을 가지는데 다만 다른 점은 *U-Band* 지표이다.

MMTIC 채점기록지에는 아동의 심리적 유형을 나타내는 4가지 문자부호가 요약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어느 척도에서는 아동의 선호도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결정되지 않은 (Undetermined)”라는 의미로서 ”U”부호를 쓴다. U-Band란 Undetermined Band(미결정 영역)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은 심리적 선호도가 아직 발달 중에 있으므로, 중간치(cut-point)에 가까운 점수를 분명한 유형으로 할당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치에서 표준오차 내의 점수를 갖는 경우, U-Band라고 정하였다.

MMTIC은 이론상 MBTI에서 나온 것이지만 E-I, S-N, T-F, J-P 경향의 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아동을 구분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8가지의 선호경향이 아직은 분화되지 않아 그 미분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U(Undifferentiated)-Band 인데, 이는 양극지표에서 중심영역에 위치하여 어느 한쪽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Murphy와 Meisgeier(1993)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을 규정한 것은 심리 유형의 발달적 현상이며, 상당수의 아동은 선호성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는 것이다(김정택·심혜숙, 1993).

만약 점수가 이렇게 U-Band 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선호도의 방향이 둘 중 하나에 귀속될 만큼 아직 충분히 명료하지 않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아동의 선호도가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선호도의 측정을 통해 만족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선호도를 아직 획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U-Band는 단순히 아동의 선호유형이 분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형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많은 초기 아동들이 U-Band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의 성격 발달 특성상 중요

하게 나타나는 영역이지만, 미분화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Band는 발달과정상 나타나는 특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U-Band의 비율이 대체로 낮아진다. 그룹 분류 때는 U-Band를 별도 그룹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소수일 경우 편의상 점수가 가까운 지표에 넣어 분류한다.

만 9세에서 만 13세까지의 2592명을 대상으로 한 김정택과 심혜숙(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에 따른 U-Band의 분포에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U-Band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각 지표가 분화되어 점차 뚜렷한 선호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은 아직 성격유형의 지표들이 미분화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유형 연구들에 절차상 어려움을 주는 면이기도 하다.

마. 아동의 성격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 나라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의 남녀 아동들 중 외향성 66%로서 성인들의 40-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S-N지표에서 58%가 직관형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인들의 약 2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T-P지표에는 감정형의 비율이 88로서 성인들의 약 40%보다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P지표에서도 인식형의 비율이 82%로서 성인들의 약 2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우리 나라 아동들이 외향적이고 자기표현이 활발하며 직관경향이 높다. 또 관계지향적이며 행동양식이 규제나 규범에 메이기보다 자유스럽게 표현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택·심혜숙, 1999). 이것은 한국에서의 성인들의 일반적인 성격유형이 보수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현실지향적인 것에 대비된다.

MMTIC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차이에 관한 이정현(2003)의 연구에서는 외향형의 아동이 내향형의 아동보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과 적극적 대처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형이 감정형의 아동에 비해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질유형에 따라서는 직관적 사고형이 공격적 대처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MTIC과 초등학생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이 학교 적응을 더 잘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기질과 기능유형에서는 둘 다 직관적 감정형이 학교 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아동에게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 ENFP와 ESFP 등 절대적으로 다수인 아동이 학교 생활에 대해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성격유형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윤희, 1996).

MMTIC과 우울 및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이주형(2001)은 내향형과 감정형 아동이 반대 경향의 아동보다 유의하게 우울감이 높았으며,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을 선호하는 아동이 반대 경향의 아동보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높은 만족을 보인다고 하였다.

국내의 심리적 기능유형을 연구한 선행결과를 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MMTIC의 4가지 심리적 기능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직관적 사고형(NT), 감각적 감정형(SF), 감각적 사고형(ST), 직관적 감정형(NF)의 순서로 학업성취가 높다고 나타났으며(송종건, 1994), 허정의 연구결과는 직관적 사고형(NT), 감각적 감정형(SF), 감각적 사고형(ST), 직관적 감정형(NF)의 순서로 학업성취가 높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는 직관적 사고형(NT) 유형이 가장 높고 직관적 감정형(NF) 유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91).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직관적 감정형(NF), 감각적 감정형(SF), 직관적 사고형(NT), 감각적 사고형(ST)의

순서로 학업성취가 높다고 나타나(정경연, 1993) 점차 고학년이 될수록 직관적 감정형(NF)형이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학습상황이 직관적 감정형(NF) 유형의 특성인 창조적, 예술적 표현이나 자기표현을 할 기회가 적으며 상상력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혜경, 2003).

중앙적성출판사에서 펴낸 어린이용 성격진단검사와 MMTIC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바에 따르면 외향성 지표와 상관이 높은 것은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우월성, 그리고 타당성척도였다. 그중에서 사회성과 외향성지표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특성과 일치한다. 그리고 내향성에 비하여 외향성의 아동들이 적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은 외향성의 우월성과 타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일치된다. 내향성 지표와 관계있는 성격척도는 우울경향과 불안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려성과 불안 경향이 감각지표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각경향과 관계가 있다. 안정성과 사회성 책임성, 그리고 타당성은 감정지표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성이 반추하고 자신의 세계안으로 철수하는 경향은 내향성의 우울경향과 불안 경향의 척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은 타당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사고지표는 우울경향, 불안경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지표는 활동성과 남향성과 상관이 높았고, 판단지표는 책임성과 불안경향척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택·심혜숙, 1993).

2. 자아탄력성

개인은 저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다뤄야 하고, 삶의 변이를 통과해야 하며, 인생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많은 이론가들과 실험가들은 적응력에 대한 개인차의 원인을 연구했다.

자아탄력성은 역동적인 성격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Block에 의해 초기 성격구조로 개념화 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외적, 내적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다. 좁은 의미로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다(1982). 이는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특히 좌절을 느끼지 않으며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일컫는다. 결국 포괄적으로 자아탄력성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Block, 1982).

탄력성이란 역경을 겪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탄력성은 회복력과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의 복귀능력이다(Garmezy, 1983). 반면, 자아탄력성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충동을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자아 통제 등의 관련개념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자아의 동기조절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고민숙, 2002). Block

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긴장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 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기술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초기 연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다루어졌으나 점차 인간의 적응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현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Bonanno, 2004).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질지 아니면 이겨내는 전략으로 자신을 변화시킬지의 적응체제를 유지하는 성격체제로서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적응체제의 한쪽 끝에는 연약한 자아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탄력적인 자아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다. 연약한 자아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위협에 빠지는 것을 말하나, 불안하지만 이를 이겨내는 전략으로 자아통제를 변화시킨다. 이 전략은 자아구조에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여 연약한 자아의 행위를 막고 적응적인 반응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탄력적인 자아는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게 하고 삶에서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애착형성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아기에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보다 자아탄력성이 더 낮다(Main, 1996)는 결과가 있어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자아탄력성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권지은(2003)은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이는 또래 애착이 강한 사람이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유능하고, 효과적인 지능과 융통성을 지니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상황의 요구에 그들의 지각, 인지, 행동전략을 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불분명한

장면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보다 자신감 있고 유능함을 느끼는 경향을 나타냈으며(Block & Kremen, 1996), 그 밖에도 IQ가 높고, 성적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수행이 우수하며, 정신병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신뢰감을 주며,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구형모, 2000). 박지아(2003)는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사람에 대해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고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을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구자은, 2000)으로 보고 있다. 임상희(2005)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적극적이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보임으로써 보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대처행동을 한다고 했으며, 김옥선(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관계 등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탄력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보호요인으로는 개인변인에서 성이나 나이, IQ, 학업성적, 특기, 다른 사람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격, 자기효능감 등이, 가족변인에서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부모의 사이가 좋은 것,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그 외 변인에서는 학교선생님의 지지, 또래와의 관계, 부모이외의 중요한 사람과의 지지적인 관계, 좋은 이웃 등이다. 물론 각각의 요인들은 특정한 위험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권지은, 2003).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좌절을 느끼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굳어 있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긍정적인 적응요소로서 당면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행동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좌절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동참하며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3.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 간의 선행 연구 고찰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Murphy & Moriarity, 1976, Block & Block, 1980, 구형모, 2000, 윤현희, 1998)은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이 일정한 성격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Murphy와 Moriarity(1976)의 종단 연구에 의하면 탄력적인 아동들은 입학하기 전부터 자율성이 강하고 사회지향적이었다. 또한 그들은 가정내에서 활발하게 놀이를 하였으며 새로운 경험을 찾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상당히 자기 의지적이었다. 그들은 응집력이 강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운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신이 자기를 돕고 있다고 믿었다.

Block과 Block(1980)은 종단적인 실험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이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을 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성격이 안정적이어서 덜 불안해하며 셋째,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학교와 사회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을 보이며, 다섯째, 또래관계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고 공감적이며, 여섯째, 유능하고 영리한 특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Block(1982)의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Robin(1996)은 CCQ(California Child Q-set)문항을 사용하여 10세의 미국청소년들을 2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연구한 결과,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언어표현이 자유로우며 에너지가 넘치고 품위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그리고 아는 것이 많았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가능하고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이었다.

자아탄력성과 또 다른 특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외향성과 성실함과는 정적으로 신경증과는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Funder & Block, 1989; Kosmitiziki & John; 1993 고혜진; 2005 재인용).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징들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은 낙천성, 자율성 및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으로 낙천성, 자율성 및 능동적인 활동성들은 삶에 대한 자신감, 통제감, 긍정성들을 느끼게 한다.

자아탄력성과 성격 특질을 연구한 Block과 Block (1980)은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징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 자기 확신, 정서표현의 적절성, 자기수용, 유능성, 유창성, 새로움 추구, 창조성, 영리함, 덜불안해 함, 덜 의심하, 덜 모방함, 재확신 추구, 공감 등을 말했다.

성인의 자아탄력성 구조를 연구한 Klohnen(1996)은 자신감 있는 낙천성, 자기확신, 개인적 적응, 이상적 자기, 생산적, 활동성, 성취, 통솔력, 대인관계의 통찰력과 따뜻함, 양육, 내적지지, 창조적 성격, 능숙한 표현, 친근감 등을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징으로 보았다.

미네소타 대학의 Sharon M. Danes(1999)의 ‘변화: 상실과 기회 그리고 자아탄력성’이란 연구논문에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긍정적인 사람들(Positive People): 삶을 도전적, 역동적이고 기회로 가득한 것으로 보는 능력을 개발한다.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위협이나 위협요소들에도 감사하고 압도되지 않는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스트레스가

삶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구분한다.

2.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Focused People):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기로 마음을 결정함으로써 그 가운데 일어나는 방해물이나 장애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다.

3. 유연한 사람들(Being Flexible People): 불확실성을 만났을 때 다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자신의 감점과 약점을 깨닫고 있으며 언제 내적인 혹은 외적인 한계를 수용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

4. 상황을 재구성하는 사람들(Organized People): 모호성을 관리하는데 구조화된 접근을 꾸준히 개발한다. 그들은 사전에 미리 구조를 확립해 두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중 필요하면 재구성한다. 그들은 언제 다른 이들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5. 혁신적인 사람들(Proactive People):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와 더불어 일한다. 그들은 차후 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경험하는 중에 배워야 할 교훈들을 끄집어낸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창조적으로 자원들을 사용한다.

Sharon(1999)은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이 변화를 준비하는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모호성을 인정한다.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고 상황마다의 최선의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목표와 비전, 경제적인 상황 모든 조건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두 번째, 정보를 공유한다. 의사결정과 실제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슷한 변화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합류해서 정보와 경험을 나눔으로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세 번째, 주변에 있는 가능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정보수집과 대안모색, 의사결정과 실행에 도움이 되는 남녀노소 전문가·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비전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요구, 물질보상이나 격려가 없이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드러낸다.

구형모(2000)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들 간의 성격특질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적인 집단이 성격특질에서 외향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현희(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낙천적, 자율적, 능동적인 활동성을 지니며, 타인에 대해 공감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Rutter, 1987; Klohnen, 1996), 학업에 있어서 지적인 성취도가 높고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Milgram & Palti, 1993).

이상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아동들이 자신의 생활환경 속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자원(권지혜, 2006)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0명 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MMTIC 성격유형 검사를 받은 학생은 모두 198명이었으나, 이중 U밴드에 속하는 18명의 학생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아래 <표 1>과 같이 180명 이었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5학년	6학년	계
남	52	39	91
여	51	38	89
계	103	77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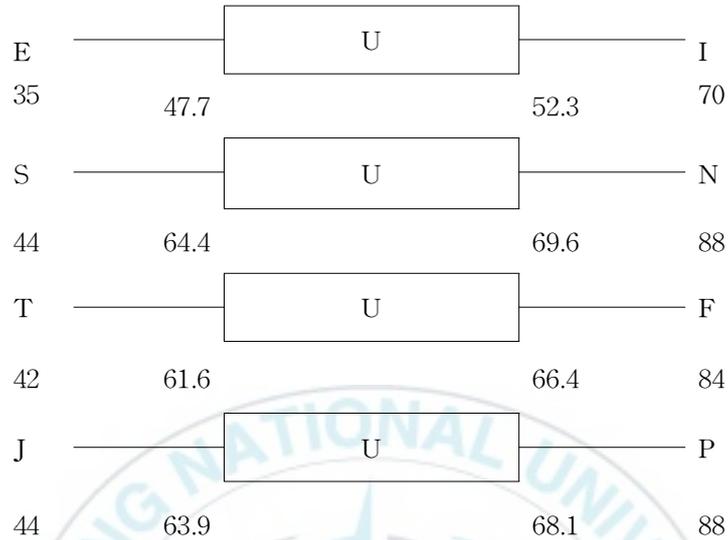
2. 측정도구

가.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

성인용 성격유형 검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듯이, 청소년 및 어린이 성격유형검사(MMTIC) 역시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1990년 미국의 C. Meisgeier 박사와 E. Murphy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MMTIC의 한국 표준화 작업은 김정택, 심혜숙 박사에 의해 1993년 만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 2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론적인 틀과 문항구성에 있어서 MBTI의 저자 K. Briggs와 I. Myers의 선호도 지표(E-I, S-N, T-F, J-P)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아동용 심리유형검사는 총 70문항으로 S-N, T-F, J-P척도를 위한 각 18문항과 E-I척도를 위한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은 '㉠' '㉡'를 선택하여 답안용지에 기입하면 된다. '㉠'에 반응하면 E, S, T, J 중에 해당하고 '㉡'에 반응하면 I, N, F, P에 해당한다. 선호도 점수는 판별분석절차를 통해 얻은 항목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되며, 답이 빠져있는 문항은 두 반응의 점수를 더해 그 중간점수를 준다. 선호유형은 EI척도, SN척도, TF척도, JP척도의 합산한 점수가 U-Band를 기준으로, 각각 왼쪽에 속하면 E, S, T, J 중 하나에 속하게 되고, 오른쪽에 속하면 I, N, F, P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그림 1> 선호유형 판별 점수대



집단 실시가 가능한 MMTIC 사용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하에 사용되며, 채점방식은 자가채점과 컴퓨터 채점 모두 가능하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채점을 사용하였다.

김정택과 심혜숙이 보고한 MMTIC의 검사-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1993).

<표 2> MMTIC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유 형	r
외향형 - 내향형	.76
감각형 - 직관형	.65
사고형 - 감정형	.63
판단형 - 인식형	.63

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적응유연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2004)이 변안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총 14문항(예,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대는 최소 14점에서 최고 56점까지 나올 수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2007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한 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구자와 MMTIC 사용 자격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MMTIC를 실시하였다. 검사 전 MMTIC의 의미, 성격에 대한 설명, 검사에 답하는 요령을 알려준 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아탄력성에 검사는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검사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각 담임교사가 실시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4. 분석방법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격유형의 선호경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와 심리적 기질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ANOVA)을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초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MMTIC 성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MMTIC을 실시하고 자아탄력성을 검사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성격유형의 선호경향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 아동의 성격유형 선호경향

선호경향	학생수	백분율
E (외향형)	131	72.8
I (내향형)	49	27.2
S (감각형)	97	53.9
N (직관형)	83	46.1
T (사고형)	135	25.0
F (감정형)	45	75.0
J (판단형)	23	12.8
P (인식형)	157	87.2
총계	180	100.0

연구대상의 선호경향에 따른 분포는 아동의 성격유형을 다룬 김정택·심혜숙(1993)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2592명을 전체 표집으로 하여 수행한 MMTIC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 김정

택·심혜숙(1993)의 연구에서 외향형(E)은 66%. S-N지표에서 58%가 직관형(N)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은 아동들은 외향형이 약 73%로 기존 연구대상 아동들보다 외향성이 높게 나왔으며, S-N지표에서는 감각형(S)의 아동이 약 54%로 직관형(N)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대상 아동의 기능유형에 대한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 아동의 기능 유형별 분포도

선호경향	학생수	백분율
심리적 기능유형		
ST (감각적 사고형)	24	13.3
SF (감각적 감정형)	73	40.6
NT (직관적 사고형)	21	11.7
NF (직관적 감정형)	62	34.4
총계	180	100.0

아동의 기능유형에서 보면 SF> NF> ST> NT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연구대상 전체 아동이 감각형이 직관형에 비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감각적 감정형의 수가 직관적 감정형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아동의 자아탄력성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대상 아동의 자아탄력성 평균 및 표준편차

학년	선호경향(학생수)	자아탄력성 평균(표준편차)
5	E (n=81)	41.98 (5.24)
	I (n=22)	36.38 (7.18)
	S (n=56)	40.00 (5.62)
	N (n=47)	42.49 (5.46)
	T (n=20)	39.05 (5.26)
	F (n=83)	41.64 (5.67)
	J (n=16)	39.63 (4.43)
	P (n=87)	41.41 (5.84)
	n=103	41.14 (5.66)
	6	E (n=50)
I (n=27)		36.63 (6.44)
S (n=41)		39.54 (5.79)
N (n=36)		40.97 (6.80)
T (n=25)		37.92 (6.96)
F (n=52)		41.30 (5.67)
J (n=7)		36.43 (5.74)
P (n=70)		40.59 (6.24)
n=77		40.74 (5.93)

5학년 학생은 103명 6학년 학생은 77명으로 5학년 학생이 좀 더 많았고 남녀학생수는 거의 비슷했다. 학년, 선호경향과 자아탄력성을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사춘기 전 어린이들 이라 학년별로 뚜렷한 선호경향이 나오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한계가 있어 분류할 수 있는 결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2. MMTIC의 각 선호경향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차이

MMTIC의 선호경향에 따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표 6>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검증

선호경향	평균(표준편차)	F
E(외향형)	42.04 (5.25)	26.35***
I(내향형)	37.27 (6.30)	
S(감각형)	39.80 (5.67)	5.35*
N(직관형)	41.83 (6.08)	
T(사고형)	38.42 (6.22)	9.59**
F(감정형)	41.51 (5.65)	
J(판단형)	38.65 (4.96)	3.30
P(인식형)	41.04 (6.02)	

*** $P < .001$ ** $P < .01$ * $P < .05$

선호경향별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향형-내향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면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직관형이 감각형에 비해, 감정형이 사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형과 인식형 간에는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기능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차이

성격유형의 심리적 기능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심리적 기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검증

심리적 기능	평균(표준편차)	<i>F</i>
ST (감각적 사고형)	39.33 (5.50)	7.90***
SF (감각적 감정형)	39.96 (5.75)	
NT (직관적 사고형)	37.38 (6.94)	
NF (직관적 감정형)	43.34 (4.98)	

*** $P < .001$

네 가지 심리적 기능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 = 7.90, p < .001$).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 표 8 > 심리적 기능에 따른 자아탄력성 점수 차이의 *scheffe* 사후검정

기능유형	ST	SF	NT	NF
ST (감각적 사고형)		-.63	1.95	-4.01*
SF (감각적 감정형)			2.58	-3.38*
NT (직관적 사고형)				-5.96*
NF (직관적 감정형)				

* $P < .05$

<표 8>에서 보면 직관적 감정형의 자아탄력성은 감각적 사고형, 감각적 감정형, 직관적 사고형 각각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관적 감정형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감각적 사고형과 감각적 감정형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M = 39.33$ vs. $M = 39.96$), 감각적 사고형과 직관적 사고형 간 차이($M = 39.33$ vs. $M = 37.38$)와 감각적 감정형과 직관적 사고형 간 차이 ($M = 39.96$ vs. $M = 37.38$)는 통계적으로 유의가 차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와 Block 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적응유연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를 유성경(2004)이 번안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자아탄력성을 측정하 였다. 성격유형의 선호경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와 심리적 기능유형 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통해서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 각형, 판단형과 인식형 등 선호경향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감각적 사고형, 감각적 감정 형, 직관적 사고형, 직관적 감정형 등 기능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선호경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 이며 적극적인 성격특성(김정택·심혜숙, 1993)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도록 한다. 이 결과는 여성 우(1999)와 조건국(2000)의 연구에서 외향성이 높을수록 문제를 직접 해결 하려고 한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며 김주한(1992)의 사회성·

명랑성의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연구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본다. 외향형의 특징이 사교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외부에서 판단의 근거를 찾는다(김정택·심혜숙, 1993)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지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많을 것이며, 말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 도움을 받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이에 반해 내향형은 인식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초점을 두며, 주위와 떨어져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고 내향성이 외향성보다 유의미하게 우울척도가 높다는 이주형(2001)의 연구를 볼 때 외향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외향형 아동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감정표현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김정택·심혜숙, 1993)이 문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응을 잘 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김지혜(2006)의 외향형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직관형의 아동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미래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을 통해 이겨내기 보다는 그 자체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해결 자체를 필연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혜경(2003)의 연구에서도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학교생활 전체에서 잘 적응한다고 말하고 있다. 직관형은 미래를 지향하고,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려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감정형이 사고형보다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감정형의 아동은 사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감정형 아동의 경향(김정택·심혜숙, 1993)이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고 수월하게 해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감정형은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사고형은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자 하는 경향(김정택·심혜숙, 1993)으로 인해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이 유발될 수 있어 자신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현장의 경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고형의 아동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학교 환경으로 인해 감정형에 비해서 학교 생활에 만족을 덜 느낄 것이다(이주형, 2001). 학교적응도 감정형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김윤희, 1996), 사고형의 아동이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넷째, 판단형 아동과 인식형 아동의 자아탄력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형은 계획과 질서에 따른 구조화된 생활양식을 선호하며, 인식형은 유연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송영경, 2006).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아니라 선호하는 생활양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연구문제 2의 결과는 기능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기능유형의 분포에서는 SF(감각적 감정)형과 NF(직관적 감정)형이 ST(감각적 사고)형, NT(직관적 사고)형보다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SF와 NF형의 아동들은 타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이는 또래문화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이정현, 2003).

기능유형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보면 감각적 사고형, 감각적 감정형, 직관적 사고형은 유사하게 나왔으나 직관적 감정형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직관적 감정형은 문제 해결은 원인과 결과가 지닌 가능성에 대해 통찰하는 객관적 분석을 통해 처리한다(김지혜, 2006). 또한 개별적 관계를 중시(김정택·심혜숙, 1993)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상황에서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 직관적 감정형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이해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

직관적 감정형은 학교환경요인에 적응도가 높고, 교우관계 요인에서 적응도가 높아(이혜경, 2003) 다른 기능유형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관적 감정형은 개별적인 또래관계를 중시하며 의사소통에 능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고 매우 친절하여 다른 사람의 좋은 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성있게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의 아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기능유형에서는 직관적 감정형의 아동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 결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선호경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의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아동의 자아탄력성보다 높게 나왔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여주고 있다. 감각적 사고형, 감각적 감정형, 직관적 사고형은 유사하게 나왔으나 직관적 감정형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성격은 연습이나 훈련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나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아동 스스로도 위기적 상황이나 역경에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 중에서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의 아동과 직관적 감정형의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외향형, 직관형, 감정형 그리고 직관적 감정형의 특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부산의 일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주지역, 연령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대상들을 포집하여 연구 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방법은 질문지에 한정하여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을 측

정했기 때문에 아동의 응답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질문지뿐만 아니라 관찰법, 면접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동원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며, 아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들의 평가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아탄력성에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성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언급한 연구도 있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MMTIC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객관화된 자료를 통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성격유형별로 자아탄력성이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아발달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민숙 (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 애착 유형과 생활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 (2005).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증대 효과와 매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 (2002).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 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형모 (2000). 자아탄력 집단 성격특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2).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혜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1998). 개인특성과 의사결정유형 관계에 의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선 (2005).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1996). *MMTIC*에 의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한 (1992). 고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06).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학업적 실패 내성 및 학교 적응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심혜숙 (1993).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심혜숙·제석봉 (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심혜숙 (1999). 성격유형에 관한 12년 종단연구 1단계: 1단계(초등4학년). *한국심리유형학회*, 6(1), 1-24.
- 류근유 (1995). 성격유형과 스트레스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아 (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송숙 (2003). 내·외향성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및 학교적응도의 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경 (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종건 (1994).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애현 (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임승환 (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여성우 (1999). 아동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홍세희·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윤현희 (1998). 부모보고형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현 (2003). 아동용 심리유형검사(MMTIC)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형 (2001). MMTIC을 통해 평가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우울 및 학교 생활 만족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3). MMTIC 성격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여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희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연 (1993). C-MBTI에 나타난 국민학생의 성격유형과 지능 및 학업성취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건국 (2000).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유형 및 대처 양식의 관계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정 (1991). 고등학교 행정의 실적평가에 관한 연구-Carl. G. Jung의 성격유형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39-10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49-361.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Cicchetti, & Toth (1991). *Models and integrations*.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Garmezy, N. (1983). Stressor in childhood. In. N. Garmezy, & M. Rutter(Ed.),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43-84). New York: McGraw-Hill.
- Jung, C.G. (1971), *Psychological types* (H. G. Baynes. Trans: Rev. R. F. C. Hull) Princeton Univ.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21).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gentry, W. D(Ed),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Guilford.
- Main, M. (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37-243.
- Milgram, N.A & Palti, G. (1993).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Resilient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3).
- Murphy, L. B., & Moriarity, A. E. (1976).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From infancy to adolesc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obin,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peber, M.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Sharon M. Danes (1999). *Change: Loss opportunity, and resil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ve Service Publication.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슷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기 원하는 대로 답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의 답만을 골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응답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인 경 드림

(보기)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1	2	3	4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1	2	3	4

(주의사항)

1. 한 개의 질문에 한 곳에만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2. 대답한 것을 고칠 때에는 처음 대답의 동그라미를 지우고, 다시 동그라미로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3.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인적사항)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_____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1	2	3	4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1	2	3	4
3.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1	2	3	4
6. 나는 매우 에너지원(힘)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	2	3	4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2. 나의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1	2	3	4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1	2	3	4